

## 석탄일에 드리는 메시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5세에 득도하여 45년간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퍼신 후 80세에 입멸하셨다. 석가는 자신을 의지하며 따랐던 제자들에게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이라는 최후의 유언을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떠났다. 석가는 타종교의 교조와는 달리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 공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으로 진리를 가르친 올바른 참스승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감로의 광명을 온몸에서 발하는 미륵불이아말로 참열반이요 해탈자이다

한편 팔만대장경 중 최후의 경전인 열반경을 또한 석가세존의 마지막 유언을 정리한 경이라고 말한다. 석가가 열반에 들기 전 하루 낮 하루 밤을 설한 말씀을 기록한 경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잘 몰랐던 석가 자신이 깊숙히 감추어놓은 비밀스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열반경을 다른 경전과 달리 비밀장(秘密藏)이라고 이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석가는 자신이 누구에 말씀하기를 감로(甘露)의 정도(正道)를 50년 동안 가르쳐 주겠다고 설하였지만 소위 열반에 들 때까지도 그것을 설하지 않자 수제

자되는 가섭은 그 어려운 자리에서 스승님께서는 생사를 마음대로 하시는 부처님이시운데 감로의 정도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 열반에 드시지 마시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하지만 석가는 감로의 정도가 무엇인지 가

르쳐 주지 않고 기어이 열반에 들어가고 만다. 단지 석가가 감로가 어떤 것이라는 것만 여러 가지로 설해 놓았을 뿐이다(3면 기사 '석가모니가 정의한 감로의 바른 뜻' 참조). 감로가 있어야 진정한 해탈이며, 참열반이다. 이 말은 감로를 못 내린 석가는 해탈을 못했으며, 열반에 들지도 못했다는 의미이다.

부처님을 믿는 신도들은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대로 믿어야 극락에 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진리가 쇠한 말법시대인 이 때를 당하여 자신의 믿음과 수행이 진정한 석가세존이 원하고 바라는 것인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성찰해 보고, 관련된 경의 말씀을 아래 기사에 실었으니 자세히 읽어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모르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업장이 되는 것이다.\*

중間有佛性 如來畢竟不般涅槃 中문유불성 여래일정불멸열반 是故名爲專心聽法 是故名爲專心聽法 시고명위전심청법

入於涅槃 唯諸菩薩能見我身常聞我法 入於涅槃 唯諸菩薩能見我身常聞我法 入於涅槃 唯諸菩薩能見我身常聞我法 入於涅槃 唯諸菩薩能見我身常聞我法

선남자여, 이와 같은 악한 비구들로 인하여 모든 성문의 제자(스님)들이 나의 가르침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었다고 말하는데 오직 보살들이 나를 보고 늘 내 법을 듣는다. (그러므로) 내가 열반에 든다고 말하지 않는데, 오직 성문제자(스님)들은 여래는 열반했다고 하지만, 진실로 나는 열반에 들어가지 않았다.

선남자여, 만약 나의 모든 성문제자의 여래가 열반했다고 하면, 내 제자가 아닌 사탄 견해의 악인이며 바른 것이 아닌 마구니의 권속인 마반당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여래(석가모니)는 열반에 들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는 마땅히 나의 진짜 제자요 마반당이 아니니라.\* 明鑑

## 성불하지(열반에 들지) 못한 석가모니 부처님

### [예] 대반열반경 16권 범행품(梵行品)의 3

善男子 諸佛如來秘密之藏 亦復如是 善男子 諸佛如來秘密之藏 亦復如是 善男子 諸佛如來秘密之藏 亦復如是 善男子 諸佛如來秘密之藏 亦復如是

[해] 선남자여, 부처님이 비밀한 법을 감춘 것도 그와 같아서 말세(現在)의 나쁜 비구들이 부정한 물건을 쌓아두고, 사부대중에게 여래(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어간 것을 필경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 경전만 읽고 부처님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나쁜 일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여래(석조)가 이런 나쁜 일을 없애고 잘못 생활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여래(석조)가 이 경을 연설하는 것이다.

민일 비밀리 감춘 이 경전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는 부처님 법도 없애지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 [예] 대반열반경 15권(大般涅槃經) 범행품(梵行品)의 2

復次善男子 言本有者 本有凡夫修苦行心 復次善男子 言本有者 本有凡夫修苦行心 復次善男子 言本有者 本有凡夫修苦行心 復次善男子 言本有者 本有凡夫修苦行心

[해] 또 선남자여, 본래에 있었다는 것은 범부가 고행을 닦아서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현재 네 가지 마군(四魔=煩惱魔, 陰魔, 天魔, 死魔를 일컬음)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본래에 없다는 것은 나에게 본래부터 여섯 가지 바라밀다가 없었다는 것이니, 본래 여섯 바라밀다가 없었으나 범부가 고행하는 마음을 닦아서 이에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으려고 한 것이었다.

### [예] 대반열반경 제 23권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 제 22-5

法者則是大乘方等經典 聽方等經名眞聽 法者則是大乘方等經典 聽方等經名眞聽 法者則是大乘方等經典 聽方等經名眞聽 法者則是大乘方等經典 聽方等經名眞聽

中間有佛性 如來畢竟不般涅槃 中문유불성 여래일정불멸열반 是故名爲專心聽法 是故名爲專心聽法 시고명위전심청법

[해] 법을 듣는 것은 곧 대승의 방등경전이며 방등경전을 듣는 것은 참으로 법을 듣는다 이름하느니라. 참으로 법을 듣는다 함은 대열반경을 듣는 것이니 대열반경중에 부처성품이 있어 여래(석가모니)는 필경까지 열반에 들지 아니했음을 듣느니라. 그러므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을 듣는다고 이름하느니라.

[해] '열반'은 산스크리트 '니르바나(nirvana)'를 음역한 것이고 취멸(吹滅)·적멸(寂滅)·멸도(滅度)·적(寂) 등으로도 번역된다. 열반의 본래 뜻은 번뇌를 제거하여 성불한 것을 의미한다.

인도에서는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사상에서도 열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불교의 열반 개념과는 다르다. 반열반(般涅槃)·대반열반(大般涅槃)이라고도 한다.

### [예]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제 23권(卷第二十三)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의 5(之五)

善男子 因如是等惡比丘故 令諸賢聞受學 善男子 因如是等惡比丘故 令諸賢聞受學 善男子 因如是等惡比丘故 令諸賢聞受學 善男子 因如是等惡比丘故 令諸賢聞受學

## 금주의 말씀 요절

###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30> “감격의 눈물을 늘 흘리며 다녔다”

여러분들! 자유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마음과 한마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강도를 보아도 내 자식이요 도둑놈을 보아도 내 자식이요 누구든지 내 자식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저주를 하거나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만 희생과 사랑을 주는 능력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는 것만 아니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만 아시지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일찍이 깨달았던 고로 매달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던 것이다. 이 사람이 슬퍼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도 불쌍하면서 감사한 존재인 고로 감격의 눈물을 늘 흘렸던 것이다.\*

BBC 뉴스

### 53살 피부세포를 30년 회춘시켰다

캠브리지의 바브라함 연구소(Babraham Institute in Cambridge)는 최근 53세 여성의 피부 세포를 회춘시켜 23세 여성의 피부 세포로 만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위 연구소의 울프 레이크(Wolf Rake) 교수는 자신의 연구가 세포의 회춘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한 것으로 세포 재생 프로젝트에 매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복제양 돌리에서 비롯된 기술

이 기술은 1990년대에 에든버러 외과

서 그의 팀이 대안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장기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방식으로 늙을 수 있도록 수명이 아닌 인간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크 교수는 첫 번째 응용 프로그램 중 일부는 절단되거나 화상을 입은 신체 부위의 노인들의 피부를 회춘시키는 약을 개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연구원들은 상처를 시뮬레이션하는 실험에서 그들의 회춘된 피부 세포가 더 빨리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양에게서 채취한 성체 유선 세포를 배아로 바꾸는 방법을 개발하여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것에서 비롯되었다. 로슬린 연구팀의 목표는 양이나 실제 인간의 복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많은 신체 부위를 대체하기 위해 근육, 연골, 그리고 신경 세포와 같은 특정한 조직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랐다.

돌리의 기술은 2006년 당시 교토 대학의 야마나카 신야(Shinya Yamanaka) 교수의 의해 더 단순해졌다. IPS라고 불리는 새로운 방법은 약 50일 동안 성인 세포에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포함했다. 이것은 성체 세포를 줄기세포로 바꾸는 유전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레이크 교수팀은 53년 된 피부 세포에 IPS 기술을 사용했다. 달게트 길(Dilgeet Gill) 박사는 그 세포가 배아줄기세포로 변한 것이 아니라 마치 23살 때부터 온 것처럼 보이고 행동하는 피부 세포로 회춘한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는 “나는 결과를 얻었던 날을 기억한다. 일부 세포들이 원래보다 30년 젊다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었다. 매우 신나는 하루였다.”라고 말했다.

#### 노화 역전 및 젊음의 묘약 필지 관심

양 돌리를 이끈 연구에 일부 자금을 지원한 생명공학 및 생물과학연구원회의 집행위원장인 멜라니 웰햄(Melanie Welham) 교수는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기술이 오랫동안 정체되었지만 임상에서 사용될 때가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아는 바 면역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반응성이 떨어지지만, 만약 비슷한 접근방법이나 새로운 치료법이 면역세포를 회춘시킬 수 있다면, 미래에는 백신 접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감염과 싸우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의 연구 노력이 전신 재생의 방법, 젊음의 묘약, 노화 방지제로 이어질지 여부가 큰 문제다. 레이크 교수는 이 아이디어가 완전히 역지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기술은 유전자 변형 생쥐에 적용되었고 회춘의 징후가 있다. 한 연구는 체장이 회춘된 징후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당뇨병과 싸울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 준 것으로 흥미로운 연구 결과이다.”